

여러분

이번에는 ‘오샤레 멧세 2010 가나자와 고노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나자와시에서는 지금까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록 등을 통해 여러분께 변경기 이후 전승된 매력적인 창작활동에 대해 발신하고 있습니다만, ‘오샤레 멧세’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멧세는 가나자와의 섬유제품과 전통공예품을 비롯한 패션산업을 내외로 발신하기 위해 개최하는 견본시장이며, 올해로 5 회째를 맞이합니다. 브랜딩 애칭인 ‘가나자와 고노미’는 ‘가나자와에서 세계로’라는 마케팅 콘셉트에 기초한 것입니다.

덕분에 가나자와로부터 나온 공예품을 비롯한 제품들은 오래전의 전통, 문화, 예능 등에서 탄생한 양질의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브랜드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가나자와로부터 나온 새로운 라이프&패션을 제안하는 ‘어패럴 페스타 2010&패션쇼’, ‘SUTEKI10 가나자와 공예이야기’ 특별기획사업 ‘생활공예전’ 등을 개최합니다.

또한, 판로 확대뿐 아니라 직접 일반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오샤레 멧세’ 기간 중에는 중심 상점가와의 연계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발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질 높은 생활공예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과 시이노키 교류회관을 중심으로 10 월 13 일~18 일까지 개최합니다.

<http://www.oshalemesse.com/index.html>

그리고 앞의 호에서도 알려드렸던 세계 창의도시 포럼의 올해의 테마는 ‘멧세의 전략적인 전개를 통한 문화의 비즈니스화’입니다. 일본 국내외 여러분께서 창의도시의 멧세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해 주실 계획입니다. 이 포럼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의 가나자와 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39713&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앞으로도 크래프트 창의도시 · 가나자와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위해 각종 실천적인 전략을 통해 크래프트 문화의 비즈니스화를 더욱 추진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드림